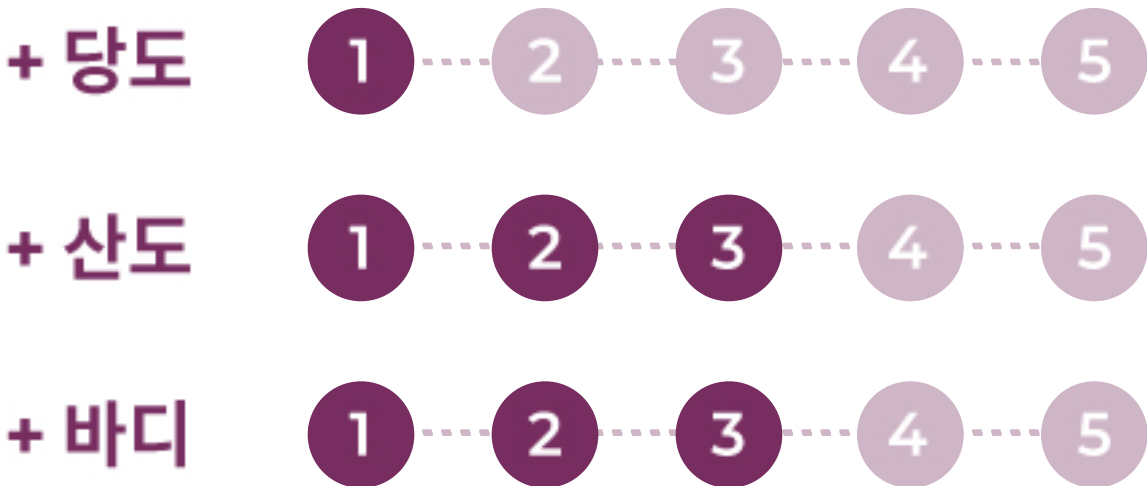




Louis Jadot Chablis Grand Cru  
‘Preuses’

# 루이자도 샤블리 그랑크뤼 ‘프뢰즈’

200년 가까운 역사에 부르고뉴  
전역에서 와인을 빚어온 노하우를  
지닌 부르고뉴 와인의 대표주자



Type	화이트 와인
Country / Winery	프랑스 > 부르고뉴 / 루이자도
Grape Variety	샤르도네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소스를 곁들여 요리한 해산물이나 크림소스를 가미한 닭고기, 푸아 그라 등 섬세한 오프 퀴진

## Information

아카시아 꽃, 허니서클의 향긋한 아로마와 입 안에서 진하고 힘찬  
맛, 긴 여운을 가진 풀 바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다.  
18개월 오크 배럴에서 숙성해 좀더 복합적인 풍미와 바디감을 느낄  
수 있다. 빈티지로부터 4~5년 됐을 때부터 신선하게 즐기기 좋으며  
10~15년 더 두고 숙성할 수 있다.

**Tip** | ‘프뢰즈’는 프랑스의 명품 화이트 와인 산지로 이름난  
샤블리에서도 최상급에 속한다. 샤블리 전체 면적 3500  
헥타르 중 프르미에 크뤼와 그랑 크뤼를 합해봐야 856  
헥타르에 불과하다. 그랑 크뤼에 속한 포도밭은 단  
7개이며 모두 세랭 강 우안의 언덕에 위치해 있다.